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임준 연구위원

부정행위에 대한 행동경제학 연구결과를 연성보험사기에 적용하면, 연성보험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기 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량강화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대책은 연성보험사기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연성보험사기 대책으로는 홍보·교육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 향후 연성보험사기 억제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행동경제학은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위를 심리적 요인 등 합리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분야임.

■ 전통적인 경제학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①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 ② 발각될 가능성, ③ 체포되었을 때 예상되는 형량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¹⁾

● 첫 번째 요소는 범죄행위의 기대편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범죄행위의 기대비용을 구성하는데 기대편익이 기대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됨.

● 전통적 경제학의 범죄결정이론에 의하면,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형량을 강화하는 것임.

1)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 경제학 이론은 'Simple Model of Rational Crime'이라고 불리는데, 게리 베커(Gary Becker)에 의해 고안되었음.

-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Dan Ariely)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범죄결정이론이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음.²⁾
 - 애리얼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정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에 관한 것임.
- 애리얼리는 일군의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그룹 A, B)으로 나누고 실험대상자들에게 20개의 문제를 주고 5분 동안 풀도록 한 후 정답 1개 당 50센트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음.
 - 그룹 A의 경우에는 문제를 푼 후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채점하고 맞은 개수만큼 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음(통제 상황으로 지칭).
 - 그룹 B의 경우에는 문제를 푼 후 답안지를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후 감독관에게 맞힌 개수를 이야기하면 감독관이 맞춘 개수만큼 상금을 지급함(파쇄기 상황으로 지칭).
 - 통제 상황에서의 평균 정답 개수는 네 개였고, 파쇄기 상황에서의 평균 정답 개수는 여섯 개로 파쇄기 상황에서 평균 정답수가 더 많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것은 아님.
 - 흥미로운 사실은 파쇄기 상황의 평균이 높았던 것은 소수의 사람이 실제 맞춘 개수보다 더 많이 맞추었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조금씩 더 맞추었다고 거짓말을 한 데 있음.
-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 일부 변화를 주었는데, 하나는 보상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답안지를 절반만 파쇄시키는 것이었음.
 - 보상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답안지를 절반만 파쇄시키는 것은 발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대비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보상금액이나 발각 가능성에 변화를 준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의 경우에도 평균 정답 개수는 여섯 개로 첫 번째 실험 파쇄기 상황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사소한 거짓말의 경우에 부정행위의 수준이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함.
 - 위 실험의 경우에는 피실험자들이 두 문제 정도 더 맞추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댄 애리얼리(2012),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청림출판(원서의 제목은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에서 인용.

- 위 실험의 결과처럼 사소한 거짓말 여부가 내적인 도덕성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유형의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음.³⁾
 - 학자들은 실험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정직하게 작성하겠다는 서명을 그룹 A는 신고서 서두에 서명하게 하였고, 그룹 B는 신고서 말미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 실험결과 그룹 A의 부정행위 수준이 그룹 B보다 더 낮았음.

- 애리얼리의 연구결과를 보험사기, 특히 연성보험사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⁴⁾
 - 첫 번째 실험결과에 의하면, 연성보험사기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
 -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결과에 의하면, 연성보험사기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⁵⁾ 앞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들은 경성보험사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연성보험사기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형량이 강화되었고, 보험사기적발시스템 고도화는 조직적 보험사기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연성보험사기의 경우에는 경성보험사기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현재 대책들 가운데에서는 홍보와 교육 등이 연성보험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연성보험사기 대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성보험사기에 비해 연구나 정책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3) L. Shu, N. Mazar, F. Gino, D. Ariely, and M. Bazerman(2013), "Curtailling Fraud One Signature at a Time", Working Paper, Harvard Kennedy School, Mossavar-Rahmani Center for Business and Government에서 인용.

4) 경성보험사기는 의도된 또는 계획된 보험사기를 의미하고, 연성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를 의미함. 우연한 사고 후에 입원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연성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금융위원회(2017. 1. 18),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 향후 연성보험사기 억제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을 고려해볼만 함. 6) [kiri](#)

6) 신생 P2P 보험회사인 Lemonade는 행동경제학적 연구결과를 보험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덴 애리얼리를 Chief Behavioral Officer로 영입. 미국의 연구기관 가운데 ideas24가 있는데, 이 기관은 행동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임. 최근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거짓말이나 준법정신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반인을 위한 도서에 김형희(2016),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 허태균(2015), 『어쩌다 한국인』, 중앙books 등이 있음.